

경인북북선공사로인한송내2동569번지송내연립A동대책에관한청원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성명 : 김세하

주소 :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569번지 송내연립 A동 104호

나. 소개의원 : 전덕생 의원

다. 접수일자 : 1998. 11. 17

라. 회부일자 : 1998. 11. 27

마.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1998. 12. 15) 상정, 질의 토론

○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1999. 1. 23) 의결

2. 청원요지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69번지 송내연립 A동은 78년에 준공된 노후된 건축물로서 경인북북선 부천역에서 중동역 구간에 위치하여 전철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 주택은 균열이 가고 주변의 열악한 환경으로 생활할 수가 없으니 철도청이나 부천시에서 매입하여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청원임.

3. 취지설명요지(취지설명 : 전덕생 의원)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69번지 송내연립 A동은 경인전철 북복선 공사로 인하여 방음벽 부분이 동연립 부지를 침범하였으며
- 소음 및 진동으로 건축물이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관계로 해당 주민들은 철도청측에서 매입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며
- 이 일대의 주민은 당초 어린이놀이터가 송내동 560-5번지에 있었으나 부천시에서 매각하여 어린이 놀이공간과 휴식공간이 없는 관계로 경인북복선 준공 후 분할된 잔여토지를 부천시에서 매입하여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달라는 청원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연립의 안전진단 결과는? ○ 철로변 용벽공사가 동연립의 부지를 침범했는지? ○ 동연립을 시에서 매입할 의향은? ○ 동연립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신력있는 기관의 안전진단을 한 실적은 없으며 소사구 건축과의 자체점검시 건축물의 노후화, 철근 등의 부식으로 건축물구조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을 하도록 주민에게 통보한 바 있음 ○ 대지경계선에서 27.5㎡를 침범했으며 철도청에서 손실보상협의 공문서를 발송했으나 입주자들이 거부하고 있음. ○ 시의 재정형편상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전철역 부근에 이와 유사한 지역이 다수 있음. 이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후 문제점을 발췌하여 경인북복선 준공 전에 철도청에 대하여 해결토록 촉구하겠음. ○ 또한 동연립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관리하겠음.

5. 심사결과

-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 ※ 생활불편해소에 관한 청원의견서 1부. 끝.

경인북복선공사로인한송내2동569번지송내연립A동대책에관한청원의건서

소사구 송내2동 569번지 송내연립 A동은 78년 1월 19일 준공된 노후된 건축물로서 17세대의 영세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 편의시설이 전무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임.

또한 동 연립은 부천—중동역 구간 경인전철에 인접하여 전철운영에 의한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하며

주택에 균열이 가 소사구청에서도 건축물 구조에 많은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고 C급 건축물로 특별 관리하고 있는 연립주택임.

청원인들은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4월부터 소사구청, 부천시, 철도청, 정부합동민원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꾸준히 청원하였으나

96년 5월 22일 철도건설본부로부터 전철운영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피해에 대한 저감시설 통보와 고압전선에 따른 전자파 피해는 걱정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와

98년 9월 17일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동 사항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는 사항이나

철도청의 철로변 방음벽 공사시 동 공사부분이 송내연립A동 대지경계 27.5m'를 침범하였으며, 동일 부지에 있던 송내연립B동 21세대는 지난 95년 11월에 철도청에서 매입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경인전철의 전동차 운행횟수가 하루 4백65회가 운행되어도 동 연립의 주택 구조와 주민 생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경인북복선이 완공되면 현재 전동차 운행이 3분에서 2분간격으로 179회 늘어난 6백44회로 증가되어 동연립의 구조 안전에 대한 위험의 증가로 주민 생활은 더욱 불안할 것임.

또한 동 연립 주변은 어린이놀이터가 송내동 568번지에 있었으나 1990년 3월 9일 부천시에서 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여 그나마 있던 편의시설마저 없어져 주민생활은 더욱 열악한 사항임.

주민편의시설의 전무, 전동차의 소음 등으로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철도청은 침범된 부지를 매입하고 부천시에서는 철도청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등

부천시와 철도청에서는 동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의 안전 도모와 주민들이 부천시민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현 입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상되는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함.

1999년 1월 23일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